

# 내소사·개암사 흰개미 피해 심각

## 문화재청 긴급방제 나서



흰개미에 의해 훼손된 목조건축물 모습.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보물 제 291호)과 개암사 대웅전(보물 제 292호) 등 중요 목조문화재가 흰개미로 몸살을 앓고 있다.

7월 9일 문화재청(청장 이견우)은 “최근 내소사와 개암사 등 중요 목조문화재에서 흰개미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있어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합동으로 확인한 결과 흰개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긴급방제 했다”고 발표했다.

문화재청이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과 조사한 흰개미 피해 실태는 심각했다. 흰개미가 내소사 대웅보전 등 중요목조문화재에 서식하면서 목조기둥 밑둥이 달걀크기로 떨어져나가거나 벽체 곳곳에 바늘귀 모양의 구멍이 송송 뚫려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목조구조물 안전에 별다른 이상은 없다. 다만 목조구조물 특성상 내부의 육안식별이 불가해 정확한 피해정도를 알 수 없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 추가 훼손도 불가피하다는 우려에 1억36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고 말했다.

흰개미 방제는 피해문화재를 천막으로 감싼 후 약품을 살포하는 훈증처리와 건물주변에 살충제를 투약해 흰개미 침입을 방지하는 토양처리, 흰개미 생리와 생태를 이용해 방제하는 균체제거처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됐다.

조선 중기 지어진 내소사 대웅보전은 1963년 보물 지정된 목조건축물로 정면 3칸, 측면 3칸, 단층 팔작

지붕의 다포집 형태다. 기둥은 배흘림과 평기둥을 함께 사용했다. 초화문을 투각해 공예적으로 정교한 장식을 새긴 분합문과 처마 밑 공포 등이 한국적인 색채를 대표한다는 것이 전문가 평가다. 개암사 대웅전도 조선 중기 지어진 건물 규모에 비해 굵은 기둥과 살리 첨차가 하나로 연결돼 장식판처럼 변형된 공포 등이 돋보이는 목조건축물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흰개미 피해가 발생한 내소사, 개암사 등을 시작으로 피해지 인근 목조문화재, 전국 목조문화재로 점차 범위를 확대하며 흰개미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적극적인 방제대책을 통해 목조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ud1080@naver.com

## 부부나혼자 군산 흥천사 가족법회

# “가정이 영산회상·가족이 부처”

찌는 듯한 무더위가 한창 기승 부리는 일요일 아침, 군산의 명승인 월명공원 입구 나무 그늘 아래 가족단위 사람들이 모였다. 반갑게 인사 나누는 이들은 흥천사 가족법회에 참석한 불자 가족들이다.

흥천사 가족법회는 1998년 지환 스님(흥천사 회주)이 흥천사 가족 간 화합과 신심을 높이고 거사들의 법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었다. 가족법회가 있기 전 흥천사는 ‘치마불교’라 불릴만큼 보살들만의 불교였다. 이제 흥천사 가족법회는 흥천사는 물론 군산 지역불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신행단체로 자리 잡았다.

흥천사 가족법회의 가장 큰 특징은 어른을 중심으로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웃한 반야유치원 법당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법회와 청소년 법회가 같은 시간에 열리는 점이다. 세대를 병합한 법회에 가족이 함께 흥천사를 찾을 수 있었다.



원칙으로 여긴다.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흥천사 가족법회는 해마다 우리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바자회를 개최해왔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어버이날 즈음 열리는 ‘자비의 경로잔치’ 기금으로 사용한다. 군 포교도 열심히 해 공군 군성사 법당에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한다.

“가족이 부처입니다.” 지환 스님은 늘 가족에게 헌신하는 불자가 되라 당부한다. “매사 가족

## 같은 시간대의 법회가 불자가정 만들게 해

법회 스님(흥천사 주지)은 “가족법회가 활성화되자 부부 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자연스럽게 법회에 참여해 불심을 키웠다. 가정의 화목과 불심 가득한 불자가정을 만든 것이 가족법회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흥천사 가족법회는 어떻게 진행될까? 흥천사 가족법회에서는 경전 등 이론으로 접근하는 불교를 지양하고 실제 불자들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실천불교를 강조한다. 가족법회 프로그램도 참선과 기도 중심으로 진행한다. 스님도 어려운 법문보다는 불자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법문을 한다.

가족법회 회원들은 법회 참석 뿐 아니라 점의 크고 작은 행사에는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것을

이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안정된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지환 스님은 “가족들이 합심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이 합심해 기도 정진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고 당부했다.

올해부터 가족법회를 이끌고 있는 황동호(법명 하정·사진)회장은 “창립초기 역대 회장님들 노력으로 가족법회가 신행단체들의 모범이 됐다. 흥천사 가족들의 신행활동과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황회장은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불자들의 신행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장병들에게 친형, 친구가 되겠습니다”

### 호국군성사 원경 스님 주지 취임

“법당 안에서는 장병들의 친형, 친구가 되겠습니다. 병사들이 먼저 속내를 털어놓고 고민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82년 개원한 군산 공군 38전대 ‘호국군성사’에 주지로 취임한 원경 스님의 일성이다.

원경 스님은 “열심히 예불하고 부대 무사고와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며 진솔한 모습 장병들에게 다가가겠다.”며 “있는 그대로를 가감 없이 보여주며 마음을 열다 보면 장병들에게 법당이 쉬는 공간으로 인식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불교만을 강조하기보다 부처님 가르침과 부합된 실천을 생활속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스님은 의성 고운사에서 법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동국대 불교학과와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군산 공군 38전대 호국군성사 초대 주지로 취임했다.

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부대 특성을 살려 미군 및 군인가족들에게도 불교를 알리고 싶다는 스님은 “군대

를 포교의 최전방이라 표현하지만 관심은 아직 미약하다. 불교는 이해가 아닌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경 스님은 “행동으로 솔선수범해야 군장병들이 신심도 깊어지고 참다운 행복도 알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원경 스님의 큰 원력에 군산지역 불교계도 함께 힘을 모았다. 스님은 “군산 사암연합회와 지역 불교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1982년 개원부터 지금까지 군성사가 존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 특성상 지휘관 종교관에 따라 군법당 위상도 달라진다.”고 강조한 원경 스님은 “가톨릭 신자이나 군법당에 관심 갖고 지원하는 하성룡 전대장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 겸허하라”

### 7월 5일 광주지역 시국법회 봉행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과 쇄고기 전면 재협상 촉구를 위한 시국법회가 광주전남 5교구 본사(백양사·송광사·화엄사·대흥사·선암사)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주최로 7월 5일 광주시내 중흥가에 위치한 원각사와 구 도청앞 광장에서 봉행됐다.

백양사 등 5교구 본사와 사암연합회 소속 스님 100여명과 신행단체 재가자 200여명이 참석한 광주 원각

사 시국법회에서 참가자들은 현정부의 종교편향 정책을 비판하고, 미국산 쇄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시국발언에서 “정치는 무릇 국민을 편안케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하루빨리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300여명의 참가자들은 1부 시국

법회를 마치고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구 도청앞까지 불자의 이름으로 촛불행사를 지지하는 평화행진을 벌였다. 7월 5일 열린 광주지역 촛불문화제에는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시민 1만여명이 함께했다.

광주불교대책위 공동대표 행법 스님은 “촛불이 보살이며, 국민의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미국산 수입 쇄고기 전면 재협상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호남 거사불교 새 전기 맞아

### 광주 증심사 유마거사회 창립법회

광주의 상징 무등산에 위치한 증심사(주지 지장)에 유마거사회가 창립돼 호남 거사불교가 새전기를 맞았다.

7월 5일 광주 증심사에서는 30여명 거사회원과 사찰신도 100여명이 동참해 유마거사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지장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유마

거사회 활동이 사찰 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행과 수행에 매진해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단체가 될 것을 당부했다.

거사회 3곳이 신행활동 중인 광주 지역은 증심사 유마거사회 창립으로 지역 내 불교계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유마거사회 강원형 회장은 “13년 전부터 불교와 인연을 맺었으나 함께 신행활동 할 도반이 없어 겪었던 고민이 이제 해결됐다. 유마거사회를 통해 사찰과 지역에서 부처님 법을 정진하는 좋은 단체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구독신청 · 기사제보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5199